

복음: 성령세례를 받으라!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헌장 제7조 3항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사중복음 곧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증거하되, 특히 성결을 강조하는 일이다”라고 명토박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대속적 보혈과 성령세례로 말미암은 성결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홈페이지에서 대외적으로 성결교회의 특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과 성령세례를 강조하여, 모든 신자로 하여금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교회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며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중복음과 성령세례로서의 성결의 복음 신앙을 굳게 지키며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것이 핵심적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중에 성결교회 공동체가 뚜렷이 선언하고 있듯이, 성결의 복음으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세례를 강조하여 모든 신자로 하여금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본 발제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목회 현장에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령세례를 통한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는 목회에 집중한다면, 현대교회가 직면한 세속화의 현실을 극복하여 교회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결교회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성결의 복음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성령세례론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세례 없이는 성결의 은혜나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결교회의 오래된 신앙입니다. 문제는 성령세례의 본질과 그 증거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하여 성령세례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념 설정의 난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로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세례는 자명한 사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세례는 적극적으로 강조하지도 못하고 옆으로 내버려 두지도 못하는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 한동안은 오순절교회가 등장하여 성령세례를 방언과 신유와 연결하여 성령세례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환기함으로써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현대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주요 신학적 의제 가운데 하나인 ‘성령세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는 월터 카이저 외 5명이 공저한 『성령세례란 무엇인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¹⁾ ‘성령세례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을 다섯 명의 대표적 학자가 순환 토론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 오순절 · 웨슬리안 · 은사주의 · 가톨릭 전통에서의 성령 세례관이 제출되었고, 발제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전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1) 월터 카이저 외 4인, 『성령세례란 무엇인가』, 이선숙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문제는 각자의 신앙 전통에 따라가는 것 외에 더 폭넓은 개념 이해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만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오순절 계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 있는 데는 성결 전통인데, 여기에서는 성령세례 개념을 성결의 관점에서 “성결은 곧 성령세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성결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중생 이후에 받는 이차적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본질과 사역의 관점에서 성령세례 자체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결·오순절 전통에서 취약한 점은 성령세례를 중생 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믿는 자 안에 임재하거나 역사하는 성령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령세례는 예수 믿고 난 후 어떤 순간에 특별하게 임하는 체험이라는 전문 용어(technical term)가 되어, 맥락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고유명사로 머물러버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세례를 신학 혹은 신앙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성령세례’라는 용어 자체를 꺼리는 현상, 그래서 이를 ‘성령충만’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엡 5:18)는 말씀은 단 한 번 나오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라는 말씀은 적어도 5회 이상(막 1:8, 요 1:33, 행 1:5, 행 11:16, 고전 12:13, 등) 나오고 있어서, ‘성령세례’를 ‘성령충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에는 성서적으로나 신학적 의미상으로 적지 않은 무리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이 성경 본문의 맥락에서 의도하는 뜻을 명확히 찾아서 오늘의 현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길을 찾는 것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데 더 긴급한 일로 보입니다.

보편적 역사 vs. 성령세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서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의 영으로서 생명의 자기실현 과정에 참여할 때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거나 그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함으로써 사귀를 나누는 등의 모든 것은 성령이 홀로 이루는 활동이 아니고,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였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신앙고백을 할 때, 그 역시 예수께서 누구인지 알고 믿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5~17)

이때 예수께서는 ‘성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 11:20)고 누가복음은 보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성령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거듭나게 되는 이 영적 사건에 -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고서는 결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보내졌다는 사실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저항함이 없이 순전한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 가운데, 은밀하면서도 확실한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처럼 한 개인의 신앙 사건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성령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모두가 성령세례를 받은 사건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세례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을 시작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다음 이어지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약속하였던 것으로서 제자들은 이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세례였습니다.

이 성령세례는 오늘날 개혁주의 전통에서 보는 관점과는 달리,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영적 권능을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자기실현 과정 중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바로 이러한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생명의 자기실현 과정 중에서 수직 상승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중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성령세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행 2:17~18)

성령세례에는 세례를 주시는 주체가 있고, 동시에 세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온 자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주체의 입장에서 성령세례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영접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과는 분명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같은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부연하여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고, 예수께서 유언을 남기듯 성령세례를 받을 것을 그토록 당부하였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고사하고 이제는 물세례까지도 받는 일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같은 성령에 의한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성령세례는 언제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지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성령에 관련된 모든 역사는 영적이므로 어떤 특정한 현상으로 드러나서 가시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존재와 그 활동이 분명히 있고 그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지만, 그것이 어떤 보이는 형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에 언제나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표현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 · 바람 · 물 · 기름 · 소리 등입니다.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다양성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개개인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활동 모습 또한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례가 임하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성령세례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령세례 받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만물의 운행과 인간사를 통해 신이 존재하여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양심에 새겨진 법에 따라 살기를 힘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어떤 일을 해서라도 심판을 피하고 신을 기쁘게 해 드리려 종교를 찾습니다.

이처럼 내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종교인으로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속죄함과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를 통해 전하여 듣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에 - 유대교나 이웃 종교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 복음 전도자의 가르침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 하더라도 성령이 누구인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적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냈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성령으로 태어난 것과는 무관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세례를 받는 것은 우연히 아무 때나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3~16)

이 사건은 내가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였을지라도, 이와 별개로 성령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세례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도와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성령세례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어떤 자들보다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누구인지, 그가 왜 오셔야 하는지, 그가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 성령을 받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요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는 성령을 받으셨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요 1:32)

-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 1:33)

- 예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 3:8)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자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4)

- 예수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9)

- 예수는 자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 예수는 성령이 믿는 자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 예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이상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는 것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세례를 베푸실 자라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한참 후에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지할 때 알려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속죄양으로서 죽게 되시리라는 것과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걸림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스스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께서 오셨고, 또한 성령도 보내심을 받아 오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성령세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때 성령의 인격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와 성령의 능력 측면이 강조되는 때도 있겠는데, 성령께서는 성령세례를 받는 자의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결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기도 하고, 권능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인격적 존재나 아니면 비인격적 존재냐’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신적 차원의 존재,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사유의 틀을 뛰어넘은 성부 · 성자 ·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안에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당당히 고백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지금 성령세례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로 이 지점, 곧 성부 · 성자와 위격을 달리하면서도 동등한 신분인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 · 구약 성경 전체를 시대 순서로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볼 때, 성부 · 성자 · 성령의 차례로 역사의 사건 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적 위격의 순위를 매길 때 성령은 제3의 위격적 하나님이 됩니다.

성부 · 성자 · 성령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형성 이전에 함께 존재하실 때는 위격의 순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창조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위격적 순서가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가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승천 후 성자가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순서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격의 순서는 세상의 문화적 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닌 분이요,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은 그로부터 나오신 바 된 독생자이시니 인성을 지닌 신성으로서 무엇인가 완전한 신성이신 성부와는 질적 차이가 생기는 것 같고,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에게 와서는 그 질적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것 같다는 관념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1위격의 신성과도, 그리고 제2위격의 인성과도 무엇인가 다른, 그래서 차라리 제3위격은 신성이나 인성의 관점에서 보다는 만물을 운행하는 능력이나 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신앙인들이 성령에 관하여 대중적으로 범하는 오류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수정 없이는 성령세례를 단지 능력을 받는 특수한 종교 행위 혹은 급진적 영적 의례 중의 하나로 폄하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위격의 순서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받는 바른 자세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처음과 나중의 시간 차이가 남으로 위격적 순위가 생겨, 인간적 문화 관념이 부적절하게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관점이 만들어집니다.

나와 성부는 나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하늘’에서 다스리는 분으로 ‘내 위의 존재’로 인식되고, 나와 성자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자로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성부 곁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곁의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나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의 법 아래서 유혹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성부가 성자를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때 나는 성령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격적 주님으로 모시는 것뿐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에게서 나오신 성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게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은 '내 안의 존재'로 언젠가 인식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사실을 알게 되어 성부와 성자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자녀요, 그를 머리로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성부께 기도해 주시고, 성자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권능을 부여해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기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은 이를 성령세례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변화의 사건, 곧 중생 체험으로서 성부 · 성자 ·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어느 한 분의 주도적인 사역이거나, 어느 한 분이 배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중심에 서 있는 나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의식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의 부모와 산파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중생 시에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 이를 일부에서 성령세례라 부른다 하더라도 -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는 내가 믿을 때 임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거듭남 이후의

성령세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도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상태, 곧 성령의 주권과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아닌 이상, 언제라도 가온 L·7자리에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²⁾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나는 "거룩하고 죄가 없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문제입니다. 이는 나와 성령의 관계 또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한 번 하나 됨의 영적 일체감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지속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성령의 관계는 벽에 못을 한 번 박아 놓으면, 누가 손을 대지 않는 한 벽과 못이 영구히 일체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나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언제든지 첫째 아담처럼 죄의 법을 따라가는 유혹을 받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함으로써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었더라도 그 관계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한에서만 마지막 때 신랑에 의해 들림을 받아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모르는 남녀가 연애하다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서 잘

2) "가온 L·7자리"는 발제자의 신조어로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생명의 중심을 의미한다.

때도 있지만, 마음이 서로 나뉘어 소통조차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급기야는 이혼하여 완전히 남남으로 결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교회인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엡 5:21~25).

같은 맥락에서 성령과 나의 관계도 부부의 비유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아이는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장성하면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부터 나는 수동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수준을 넘어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연인들처럼 나도 성령과의 적극적인 사귀기를 갖고자 열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인해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그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 받기를 구합니다.

이처럼 나는 성령과 연애하는 것을 넘어 때가 되어 한 몸, 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이러한 나의 갈구함과 더불어 내가 성령과 하나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주께서 나의 청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내가 부부처럼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시는 영적 결혼식을 집례하십니다. 이 결혼식의 순간은 오직 성령세례를 베푸시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바로 이 성령과 내가 한 몸이 됨을 선포하는 결혼식의 순간이 예수께서 모든 제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성령세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세례는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신적 인격과 능력에 전격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례가 일어나는 순간은 성령을 보내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나 보냄을 받는 성령 자신 모두에게 최고로 기쁨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새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나에게는 생명의 자기실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아 성령과 내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살기 전에도 성령과 나는 지속적인 사귀기 가운데 있었고, 성령의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부족함이 늘 존재하였습니다. 새끼 뱀 암사슴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신부가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되어 결혼하는 날이 오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결혼하기 전까지 느꼈던 모든 갈증과 부족함을 순식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요, 내 영혼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성령 충만의 순간입니다. 이는 성령세례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최상의 영적 사귀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어렵듯이 경험하고는 있었으나 영적으로 고아처럼 지내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인 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게 보내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믿게 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거듭 태어난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세례를 받아 성령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알려주시고,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다가 때가 되어 주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결혼예식, 곧 성령세례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성령세례를 통해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권능에 의해 완전히 지배를 받아 나의 가온 L·I 자리는 성령의 보좌가 되고, 나는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받은 자의 삶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향한 태도는 이전에 성령을 ‘엄마’나 ‘선생님’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능동적이며 적극적이 되어, 내 마음은 늘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 성령과 하나가 되어 - 광야 사십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눅 4:1),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행 2:4),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의 관리들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듯이(행 4:8),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듯이(행 7:55),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였듯이(행 11:24),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과 하나 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Spirit”(엡 5:18)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The Lord fills you with the Spirit.’로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The Lord baptizes you with the Spirit.’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마 3:11)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즉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한 대로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 성령의 가르침, 보살피심, 치유하심, 키우심을 받고 자라온 것과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인격적으로 깨우침으로써 성령과 더불어 사귀는 것은 연속적인 일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내 가온 L·I 자리에 모시는 것은 순간적이고 급진적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놀라운 영적 충만함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라도 거룩함을 어느 한순간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

내가 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의 순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한 부부라도 서로에게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한에서 결혼의 축복이 유지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세례 받는 첫 걸음.

기도로 기다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aiteo*, ask)” 자에게 아버지가 성령을 주실 것(*dose*)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마 7:11)으로 주신다고 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 지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향하여 구혼(求婚)하듯이, 내 영이 성령을 향하여 그리고 성령은 나를 향하여 서로 결혼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성령이 더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나 또한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가 되어 언제나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능력으로 넘쳤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주례자가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릴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순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세상에 흩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한곳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4~5)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4)고 한 것과 같이 기도하던 중에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행 2:4).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영적 대 사건은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행 2:33)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 받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행 2:38)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려지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위험한 일이었음을 고려할 때, 개인이 예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세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영접하는 자이지만, 그는 믿는 순간부터 성령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성령세례 사건입니다.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령세례를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성령세례는 왜 받아야 하는가?

이는 나와 성령 간의 결혼을 비유로 이야기 나눈 것에 이미 대답이 주어진 것으로 알지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성령세례를 받은 일들을 돌아보면 더욱 더 자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세례를 받으셨던 일과 성령세례를 베푸셨던 일 이후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제자들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때의 일을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면에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따라야 할 본(本), 즉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지닌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성령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령과 하나가 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 하늘로부터 - 직접 들은 절대적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것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다”(마 4:1)고 했습니다. 죄의 법을 가지고 모든 자를 죽음에 떨어뜨리려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온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하나가 되는 성령세례가 필요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성령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보다 더욱 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4:18-19)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의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성령세례를 아버지로부터 받아 성령과 원팀(one team)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

이처럼 성령과 하나 되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감당하기

그들도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께서 준비시켜야 할 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4, 8)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나 그의 제자들에게서나,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나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한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는 비유로 이야기했듯이, 성령세례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주하신 성령님을 내 중심으로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의 몸이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남편의 몸도 그렇듯이, 성령과 나는 완전히 서로 속해 있는 존재가 되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흔들림 없이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원죄의 제거

성령세례에 대하여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이후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세례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세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서간이 되었던, 일반서간이 되었던,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를 받는 성도와 초대교회는 성령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3)

온갖 우상숭배와 정치적 핍박까지 몰아치는 흉흉한 사회 현실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예수께서 베푸신 성령세례를 받아 그들을 통해 그 성령의 불이 각지에 번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음을 사도행전은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성령세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한편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 교회가 여러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 내 문제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2천 년 교회사에 속속들이 배어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거룩함-성결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여, 교회 안에 불신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죄악들이 버젓이 행해짐으로써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지난 20세기를 지배했던 부흥 운동의 핵심은 성령세례였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성결오순절 운동이었고, 그 흐름 가운데 한국에는 성결교회와 오순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성결교회에서는 성령세례로 인한 성결이 강조되었고, 오순절교회에서는 성령세례로 인한 방언과 은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방식으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성결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 곧 성결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성결을 강조하였는데, 그 성결을 이루는 길이 곧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결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니스트 길보른(Earnest A. Kilbourne)이 초기 동양선교회 선교사로 와서 성령세례를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성결교회가 추구했던 성결은 원죄가 제거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인데, 이는 오직 성령세례 - 혹은 성령의 불세례 - 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나 혹은 성신의 세례를 받기 외에는 죄는 생래의 원질 혹은 성질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정복할 필요가 있다.³⁾

성신으로 충생함은 용서를 낫고, 성신세례는 청결을 낫는다... 성신으로 충생함은 자유로 의롭게 하며, 성신의 세례는 완전히 성결케 한다.⁴⁾

원죄를 제거하여 완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성령세례의 목적은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결, 곧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 그는 성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세례로 한 몸을 이룬 초대교회를 향해 사도들은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머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롬 15:16, 고전 6:11, 살후 2:13, 벰전 1:2, 유 1:20).

받고자 하는 자의

자세

그렇다면 성령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니스트 길보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경험적 차원에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가 제시한 대로 한다면 성령세례를 받는 은혜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 된 우리는 단지 죄사함 받는 것으로만 만족을 삼을 것이 아니라

[1]반다시 그 최악의 뿌리까지 멸절시켜야만 하겠다... 글면 엇더케 박멸할 수 있나뇨? 곳

[2]하나님의 깨닫게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3]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몸과 생명과 기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4]하나님께 완전히 '순종'만 할 것이다. 그리하면

[5]하나님께서 반다시 그 심령에 성신의 세례를 베프려

[6]정결케하실 것이다.⁵⁾

여기에서 확인되는 의지 · 신앙 · 헌신 · 순종의 네 단계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결단들이기 때문에, '통시(通時)적'일 수도 있고 '공시(共時)적'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여, 시간적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과정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중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만" 하는 '순종'의 단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3) 길보른, "동양선교회가 가라치는 사중복음(1)," 「활천」 78(1929.5), 14.

4) 길보른, "동양선교회가 가라치는 사중복음(2)," 「활천」 79(1929.6), 21.

5) 길보른, "교역자의 사명의 본질," 「활천」 49(1926.12), 2; 인용문 안의 번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몸을 전부 맡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판이한 것이 요구되었을 때 완전하게 의사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의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듯이,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때에 가장 요구되는 마음의 준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각오가 요구됩니다.

말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담으로 인해 생긴 죄의 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와 하나 됨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도를 넘어 성령과 함께 하는, 마치 부부가 하나 됨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세례를 주려하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중보하십니다. 이처럼 내게 성령은 온 우주를 조성하신 창조주이자 동시에 이 땅 위에서의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생활은 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요 복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끈으로 묶여 서로를 존중하며 복된 삶을 위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듯이, 나 역시 나의 가온 L·7자리에 성령 하나님만 좌정하시고, 나는 오직 그만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거룩한 부담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목회에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편지한 권면의 말씀을 존경하는 성결교회 목회자들에게 드립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령의 불세례를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그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고 사그라져 가고 있다면, 그때의 감격 가운데 받은 선물인 성령의 불씨를 키워 “다시 불일 듯”(ana-zoe-preo) 타오르는 “부흥(re-vive)”을 새로운 각오로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내생애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가 없이 목회를 해왔다면, 어니스트 길보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성령세례를 경험함으로써 성결 복음의 능력으로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세례의 불길이 우리 성결교회로부터 다시 타올라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에 번져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함의 성결성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성결교회요, 충성스러운 성결 목회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